

임용단기 합격 후기

경기 역사 박강연 선생님

과목명 | (교육학) | 스터디 여부 | (X) | 단권화 여부 | (X)

교육학 공부는 정말 막막했던 것 같습니다. 졸업반으로서 공부할 때는 전공이 급해 따로 교육학을 공부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 때 제가 선택한 방법은 시중에 나와 있는 교육학 개론 책을 세 번 정도 읽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임용시험에서 교육학 점수는 13점 정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학부 시절에 교육학 강의에 별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이 제 발목을 잡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2017년에 이경범 교수님의 1, 2월 강의를 듣고 그 매력에 빠져 공부를 하고 교수님이 진행하신 한 여름 밤의 특강과 끝장특강을 듣고 나울만한 주제 위주로 공부해서 두 번째 시험에서는 16.7 정도의 저 스스로 만족할 만한 점수를 받았고 교육학 점수가 오른 덕분에 1차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2018 임용 2차 시험에 떨어진 뒤 2월 말부터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 때 주저 없이 저는 이경범 교수님의 강의를 선택했습니다. 제대로 이경범 교수님의 강의를 다 듣는다면 저에게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침 프리패스 상품이 환급반으로 제공된다고 하여 그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며 모았던 돈을 다 투자했습니다.

3·4월에는 강의를 조금 빨리 들어야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 1·2월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때 강의는 최대한 빨리 듣는다는 생각으로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교수님의 두꺼운 교재도 그냥 눈으로 훑는다는 생각으로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최대한 교육학에 친숙해 진다라고 생각을 하며 공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1·2월 강의를 포기하지 않다보니 계속 강의가 뒤로 밀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들었지만 그냥 내 페이스에 따라 간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5·6월부터 3·4월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 이경범 교수님의 핵심 강의는 3·4월 강의라는 말을 들었던 터라 이 때부터는 강의를 들은 후 꼼꼼하게 배운 내용을 복습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그래서 전공만큼 교육학에도 신경을 썼었습니다. 이렇게 5·6월을 보내고 나니 교육학에 대한 근거 없는 자신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저 스스로에게는 큰 성과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7·8월에는 더 이상 강의를 듣지 않고 교육학 공부를 축소했습니다. 이 때 교수님의 한 여름밤의 특강을 또 듣고 교육학은 배웠던 내용, 즉 3·4월 강의 때 정리한 내용을 위주로 공부했습니다. 또한 프리패스의 장점을 살려 이동할 때 핸드폰으로 강의를 그냥 들었습니다. 5·6월, 7·8월, 9·10월 강의는 주로 이렇게 귀로만 들었습니다. 이경범 교수님의 가장 큰 특징은 교수님 목소리에만 집중하면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제가 단과로 수강을 했다면 수강료 생각에 이렇게 과감한 선택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프리패스는 이런 부담을 덜어주고 제가 제 공부를 스스로 개척할 수 있게 만드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9·10월에는 제 스스로 교육학 분야별 나올 수 있는 주제에 대해 저의 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 때 생각은 시험 보러 가기 전날 이 노트만 보고 공부를 해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기출이나 너무 세부적이라 내가 틀리면 대다수에 사람들도 틀릴 것 같은 주제는 다 제외하고 기출 예상 주제를 과감하게 추려서 정리했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철학에서는 실존철학, 하버마스, 프레이리, 포스트모더니즘, 듀이 등을 위주로 정리했습니다. 교육철학에서는 문제가 나오기 쉽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교육철학이 교육학의 뿌리이자 논술할 때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다른 부분도 한 번씩 확인하기는 했습니다. 교육심리도 마찬가지로 모든 부분을 확인하고 비교초기, 브론펜브레너, 도덕성 발달, 지능, 전이, 동기, 메타인지 등 각 분야에서 나올만한 이론을 정리해서 공부했습니다. 상담에서는 해결중심 상담을 필두로 나올만한 상담이론을 학습하고 진로를 강조하는 요즘 시대에 부합하고자 진로이론도 조금 자세히 공부했습니다. 교수학습에서는 요즘 트렌드인 협동학습의 대표 모델을 추리고, 가네, 오스벨 등 학자에 대한 이론을 공부했습니다. 교육과정에서는 파이나나 애플, 아이즈너 등 의 이론을 공부했고 잠재적 교육과정은 워낙 중요한지라 톡 치면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해하고 외웠습니다. 교육사회학 부분은 제가 워낙 사회학에 관심이 많았던 터라 공부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이 이해가 잘되어 중요 내용을 잘 숙지했는지 점검하고 특히 평등관에는 신경을 많이 써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후 평등관은 2차 시험을 준비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교육행정은 특이하게 계속 나오던 부분이라 외운다는 생각으로 동기, 장학, 조직풍토 등의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이 부분을 공부할 때는 교생 실습이나 시간강사로 일했을 때 학교가 어땠지? 하고 적용 해 보는 것이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교육공학도 꼭 나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딕과 캐리, ASSURE, 등의 모형과 제가 평소 관심을 가지던 플립러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플립드 러닝도 2차 준비하면서 배움중심수업의 한 사례로 개념을 잡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교육평가 부분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타당도, 신뢰도, 객관도 등 검사도구의 양호도와 평가 모형들을 정리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저는 신뢰도 검사 유형에 대해 소홀히 하여 교육학에서 높은 점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척도 부분은 아예 신경을 쓰지 않아서 그대로 점수를 놓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교수님의 안목을 토대로 내가 생각하기에 나올 만한 주제를 선정하고 정리 하더라도 객관식 시절에 나왔던 내용에 대해서는 한 번씩 챙겨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1월에는 이렇게 정리한 내용을 위주로 계속해서 암기하고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때 저의 패착은 정리한 부분만 너무 보지 않았나합니다. 제가 다시 공부를 한다면 내가 정리한 것 이외에 부분도 확인할 것 같습니다. 저는 1차 스터디를 하진 않았지만 스터디를 한다면 시야가 좁아지는 걸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교육학 공부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조건은 교육학과 친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평소 교육학 보다 전공에 관심을 더 많이 두었습니다. 교육학은 공부해야만하는, 그런 어떤 강제적인, 싫은 숙제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교육학 강의를 들면서 깔깔 웃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강의를 듣게 되었고 저도 마찬가지로 깔깔 웃게 되었습니다. 그 강의의 주인공이 바로 이경범 교수님이었습니다. 저는 이경범 교수님을 통해 교육학의 묘미와 학습의 즐거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교육학에서 배운

이론들을 내가 학교에 가서 어떻게 적용할지 상상하며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교육학과 친해지고 싶으시고 자유롭게 자신의 공부를 펼쳐나가고 싶으시다면 이경범 교수님 강의를 프리패스로 수강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과목명 | (역사) | 스터디 여부 | (X) | 단권화 여부 | (X)

졸업반으로서 첫 번째 임용시험을 준비할 때 시간의 압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교생 실습도 있었고 학교 수업도 들어야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공 지식이 부족한 상태지만 기출문제부터 풀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처음 기출 문제를 접했을 때 굉장히 어려웠지만 기출 해설을 토대로 답이라도 베킨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고 기출이 나온 전공서의 앞 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반년 정도 공부를 했으나 임용의 벽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전공은 교육학과 달리 지식이 축적된다는 느낌은 받았습니다. 다음해에는 기본서를 설정하고 각 분야별 기본서 외에 한 종류를 더 본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사는 뿌생을 기본으로 하여 한국사 통론을 같이 보았습니다. 예컨대 뿌생 1권을 읽으면 통론의 삼국시대 까지 바로 읽었습니다. 서양사는 서양사개론을 기본으로 하고 서양사 총론을 함께 보았습니다. 동양사는 한국인을 위한 중국사를 기본으로 보고 동양사개론을 함께 보았습니다. 역교론은 역사교육의 내용과 방법(녹색책)과 역사교육의 이론(남색책) 두 책을 기본으로 보고 해당 부분과 같은 부분을 역사교육의 이해(파란책)에서 찾아보는 식으로 공부를 진행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공에서는 정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공부가 안될 땐 그냥 책 내용을 물 흐르듯이 읽고 집중 될 때 잘 모르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봤습니다. 특히 어느 과목이든 근현대사 부분이 어려웠는데 두 번째 시험 준비하면서 근현대사 부분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책을 빨리 한 번 읽고 두 번째 읽을 때 천천히 정독하는 공부법을 선호했습니다. 각 분야별로 최소한 2가지의 책을 보니 한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4번은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공부법을 통해 1차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시험 직전에 볼 정리된 자료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활용한 것이 김종권 교수님의 그린노트였습니다. 한 번 책을 빠르게 본 다음 그린노트를 연필로 채워보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채울 수 있는 괄호가 채 반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책을 정독하면서 볼펜으로 못 채운 부분을 마저 채워나갔습니다. 이 때는 아직 김종권 교수님 강의를 듣지 않을 때라 공개해주신 자료만 활용했습니다.

2차 시험에서 떨어진 후 2월 말부터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김종권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며 전공 점수를 확실히 굳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환급 프리패스를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김종권 교수님의 강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의 안목을 토대로 중요한 내용을 더 중점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되어 더욱 좋았습니다.

3·4월에는 1·2월 강의를 빠르게 들었습니다. 처음 임용 시험을 준비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을 튼튼히 해놔서 나쁠 것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1·2월 강의를 들으면서 전공서를 빠르게 보았습니다. 이번에도 전공서는 두 종류씩 보되 동양사만 김종권 교수님의 커리큘럼에 맞추어 기본서를 동양사개론으로 두고 한국인을 위한 중국사를 서브로 보았습니다. 김종권 교수님의 기본서도 내용을 잡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5·6월에는 3·4월 강의를 통해 전공서를 더욱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역시 혼자서 다독할 때 보다 훨씬 더 내용을 효율적으로 잡을 수 있었고 중간 중간 알려주시는 기출 예상 부분도 공부할 때 좋았습니다. 그린노트는 작년에 해보았을 때 너무 좋았기에 이번에도 활용했습니다. 기억을 머리에 새기는데 이만한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전공은 5·6월에 내용을 다질 수 있었습니다.

7·8월은 전반기에 배운 내용을 총 복습하는 시간으로 삼아 그린노트와 전공서를 놓고 그린노트에 빠진 전공서 내용 중에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추가하고 다시 보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전에는 전공서나 그린노트를 한 번 본 후에 시간이 흘러 다시 보면 머리에 남은 게 별로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반면에 이번에는 내 머리에 전공서 내용이 채워진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7·8월에 대부분의 내용을 암기했다는 자신감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의 패착이 생각났습니다. 11월에 공부할 정리 자료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9·10월에는 11월에 볼 자료를 정리하자라는 생각으로 조그마한 노트에 전공서와 그린노트를 바탕으로 정리본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때 모든 내용을 정리한 것은 아니라 잘 외우지 못한 부분과 처음 접하는 내용이지만 시험에 나올 만 할 것 같은 주제를 중심으로 요약했습니다. 즉 반복을 통해 내 것으로 익힌 내용은 그린노트 만으로도 충분히 기억을 살릴 수 있다고 보고 그 보다 어렵거나 암기가 필요한 내용만 추려서 정리했습니다.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을 한 번 보고 11월에는 그 내용을 계속 반복하다보니 1차 전공이 어려웠지만 자신감을 가지고 계속 풀어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종권 교수님의 특강이나 마지막 달 강의는 버스를 타고 이동할 때 계속 들었습니다. 만약 단과로 들었다면 반복해서 들을 수 없었겠지만 프리패스의 장점을 살려 계속해서 교수님의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또한 프리패스는 아무 때나 제가 원하는 부분을 수강할 수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자유롭게 제 공부 스타일에 맞추어 학습을 진행해나갈 수 있었던 점이 좋았습니다. 자신의 공부법에 맞추어 교수님의 안목을 활용하여 학습을 내실화 하고 싶으시다면 교수님의 강의를 프리패스로 수강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후배 예비선생님들을 위한 학습팁

저는 신입생 때 임용시험에 대해 너무 힘든 관문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저 뿐만이 아니라 모든 학과 구성원이 임용을 먼 나라의 특별한 사람들이 통과하는 시험인 것 마냥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임용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시험에서 컷 점수에 근접한 점수를 받게 되고 다음해엔 1차 시험에 통과하면서 나도 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임용은 불가능한 시험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누구나 끈질기게 공부한다면 빠른 시간 내에 붙을 수 있는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임용을 포기할까 생각이 들면 항상 미래에 만날 우리 반 아이들의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작할 수험생활이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몸으로 3년 동안 느꼈지만 그래도 그러한 수험 생활 중에서도 소소한 즐거움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점심 식사만큼은 제가 먹고 싶은 음식을 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쁨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도서관이 문을 닫는 월요일에는 카페에 가서 교과서를 가볍게 읽으며 수험 생활의 여유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맞는 여유와 기쁨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세 번째 시험을 준비하면서 부터는 몸이 힘들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헬스를 꾸준히 하고 각종 영양제를 챙겨먹으면서 컨디션 조절에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또한 저는 몸을 시험에 맞추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침에 새벽 5시쯤 일어나 하루를 준비하고 공부하러 나갔습니다. 1차 시험이나 2차 시험 모두 아침 일찍 집에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활에 몸을 맞췄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아침을 조금 일찍 연 것이 시험 날 컨디션 조절과 성적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찍 일어난 만큼 밤에는 10시 전에 일찍 잠에 들었습니다.

시험에서 완벽이라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험이 1년이 남았든 6개월이 남았든 한 달이 남았든 주어진 시간 안에 최선을 다한다면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이 모여 여러분의 합격이 꽃피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해주신 합격수기는 2019학년도 임용시험을 준비하시는 예비선생님들을 위하여 활용될 예정입니다.